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355>

JCCT 2023-11-43

의료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bout the elderly, burn out, job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of Healthcare Workers

배효진*, 홍선연**

Bae Hye-jin*, Hong Sun-yeun**

요약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1개 특별시, 3개 광역시에 위치한 8개 보건소, 15개 요양병원, 30개 대학병원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3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학대 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14, p<.01$), 소진은 직무만족도($r=-.55, p<.01$)와 노인학대 인식($r=-.10, p<.05$)과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노인학대 인식($r=.13, p<.01$)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인식은 노인에 대한 지식($r=.14, p<.01$), 직무만족도($r=.13, p<.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진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0, p<.05$). 본 연구 결과 의료종사자의 소진을 줄이고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요어 : 노인학대 인식, 소진, 의료종사자, 직무만족도, 노인에 대한 지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workers' knowledge of the elderly, burn out, job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The study was conducted on 371 doctors, nurses, and nurse's aides working at eight health centers, 15 nursing hospitals, and 30 university hospital institutions.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his study found that knowledge of the elderly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wareness of elder abuse($r=.14, p<.01$), and burn out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r=-.55, p<.01$) and awareness of elder abuse($r=-.10, p<.05$).

Job satisfaction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wareness of elder abuse($r=.13, p<.01$). Awareness of elder abus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knowledge of the elderly($r=.14, p<.01$) and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 out($r=-.10, p<.05$).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Hospital workers can have a positiv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by reducing their burnout and improving their job satisfaction.

Key words : Awareness of elder abuse, Burnout, Health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Knowledge of the elderly

*정회원, 구미순천향대학병원 간호부 연구간호사(제1저자)

**정회원,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6일

※ 이 논문은 제1저자 배효진 석사학위 논문의 축약본임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1, 2023

Accepted: November 6, 2023

**Corresponding Author: hsy1009@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woon Univ,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발전하는 의학 기술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현재 여러 선진국들은 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1]. 노인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인지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 문제해결 능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부양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노인은 가족 돌봄을 벗어나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인 질병치료 및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인 특성에 맞는 전문적 간호요구에 따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관 및 의료제공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의 의료관계 종사자들은 전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삶의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2]. 그러나 노인환자들의 끊임없는 돌봄 요구와 응급상황대처, 그리고 다양한 건강요구들로 인하여 의료관계 종사자들의 심적인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3] 높은 소진상태를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소진을 더욱 가중하게 되고 지속적인 소진상태는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여 직무만족도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병인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직무만족도 간의 영향을 알아본 연구결과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5],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간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6]. 또한 소진과 노인학대 행위와의 관계에서 소진이 노인학대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결과적으로 의료관계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 및 직무만족도, 높은 소진상태는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노인학대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다르게 사회적 관심도나 인식 수준 정도가 매우 낮다[8].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고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9조 6항에서는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

어 있어 전문가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학대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에 따라 달리 정의되기 때문에 돌봄과정에서 학대행위에 대한 명확한 자각과 인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노인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다양한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인의 건강악화 및 잘못된 인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9] 의료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관계 종사자들이 방임, 신체적,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심각한 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재정적,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심각성을 인지 못할 수 있다. 재정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노인학대는 우울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10],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관계 종사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인식 함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료관계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의료관계 종사자의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의료관계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의료관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수립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인식 학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7개 도, 1개 특별시, 3개 광역시에

위치한 8개 보건소, 15개 요양병원, 30개 대학병원 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으로, 표본수 산정은 G*Power 3.1.9.2에서 중간 효과크기(f) .25, 유의수준(α) .05, 검정력(power) .95, 그룹수(Number of groups) 3으로 하였을 때 252개로 산정되었다. COVID-19로 인하여 설문지 미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81부를 배부하였고, 문항에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7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노인에 대한 지식(Knowledge toward elderly)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 (1998)에 의해 개발된 척도(Facts on Aging Quiz Part I; FAQ I)[11]를 양경미, 오형이, 김진선, 백영주(2002)가 수정·보완한 도구이다[12]. 본 도구는 25문항으로 신체적 영역은 11문항이며, 심리적 영역은 6문항, 가족·사회적 영역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는 Likert 3점 척도로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에 대한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따라서 지식의 총점은 최고 25점에서 최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경미, 오형이, 김진선, 백영주(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51이었다.

2) 소진(Burn out)

소진에 대한 문항은 Maslach와 Jackson(1981)에 의해 22문항으로 구성된 MBI(Maslach Burnout Inventory)척도를[13] 문성룡(2011)이 1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이다[14]. 도구는 정서적 고갈 5문항, 비인격화 7문항, 개인성취감 저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도구의 측정 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고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성룡(2011)의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정서적 고갈 영역

은 Cronbach's α =.84, 비인격화 영역은 Cronbach's α =.89, 개인성취감 저하 영역은 Cronbach's α =.82 이었고, 본 도구의 신뢰도는 정서적 고갈 영역은 Cronbach's α =.81, 비인격화 영역은 Cronbach's α =.76, 개인성취감 저하 영역은 Cronbach's α =.71 이었다.

3)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는 Smith, Kendel과 Hulin (1969)에 의해 12문항으로 구성된 JDI(Job Descriptive Index)를[15] 서성덕(2013)이 1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이다[16]. 도구는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 1문항, 업무 4문항, 후생복지 4문항, 대인관계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도구의 측정 범위는 최소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성덕(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 이었다.

4) 노인학대 인식(Perception of elder abuse)

노인학대인식 도구는 Moon과 Williams (1993)이 개발한 도구를[17], 방희명(2009)이 수정·보완한 도구이다[18]. Moon과 Williams (1993)의 도구 13개 사례 가운데 한국인 정서에서 노인학대로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1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번역·수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총 12개의 사례를 적용되었다. 학대 유형별로 신체적 학대 3건, 정서적 학대 4건, 재정적 학대 2건, 방임적 학대 2건, 성적학대 1건의 사례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학대가 확실하다’ 4점에서 ‘전혀 학대가 아니다’ 1점까지 평정하는 것으로, 도구의 측정 범위는 최소 12점에서 최고 4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대한 인식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방희명(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1 이었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4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KW-2020-13)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각 시설, 기관에 전화로 사전 동의

를 얻은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COVID-19로 인하여 방문제한이 있는 기관은 우편으로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비밀유지 그리고 학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달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 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문지에 기재하여 설명하였다. 동의서와 설문지는 자료의 보호를 위해 밀봉된 봉투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후 회수하였다. 응답의 충실성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고,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의 차이검정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정 분석을 위해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371명 중 성별은 여자가 321명(86.5%), 남자가 50명(13.5%)이었고, 연령은 20대가 176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216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사가 92명(24.8%)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207명(55.8%), 기혼이 164명(44.2%)이었고, 총 임상경력 3년 미만인 103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95명(25.6%)이었다. 직종은 간호사가 276명(74.4%), 간호조무사가 51명(13.7%), 의사가 44명(11.9%)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교대 근무가 203명(54.7%), 상근 근무가 168명(45.3%) 이었고, 현 근무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이 241명(65%), 요양병원이 118명(31.8%), 보건소

가 12명(3.2%)으로 나타났다.

표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71)

특성	변수	n	%
성별	남자	50	13.5
	여자	321	86.5
나이	20대	176	47.4
	30대	103	27.8
	40대	68	18.3
	50대	24	6.5
최종학력	고등학교	28	7.5
	전문학사	92	24.8
	학사	216	58.3
	대학원이상	35	9.4
결혼상태	기혼	164	44.2
	미혼	207	55.8
총 임상경력	3년 미만	103	27.8
	3~5년 미만	81	21.8
	5~10년 미만	92	24.8
	10년 이상	95	25.6
직종	의사	44	11.9
	간호사	276	74.4
	간호조무사	51	13.7
근무형태	상근 근무	168	45.3
	교대 근무	203	54.7
현 근무기관	보건소	12	3.2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상	118 241	31.8 65.0

2. 노인에 대한 지식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표2)과 같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56.6%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평균 평점 12.70±2.85점이었다. 영역별 결과는 신체적·생리적 영역이 평균 평점 7.10±1.46점으로, 62.4%의 정답률을 보였고, 가족·사회적 영역은 평균 평점 3.65±1.42점으로 61.7%, 심리적 영역은 평균 평점 1.94±1.16점으로 39.1%의 정답률을 보였다.

표 2 노인에 대한 지식

Table 2. Knowledge of the elderly

변수	하부영역	Mean±SD(정답률(%))
노인에 대한 지식	신체적·생리적 영역 평균	7.10±1.46(62.4)
	심리적 영역 평균	1.94±1.16(39.1)
	가족·사회적 영역 평균	3.65±1.42(61.7)
전체		12.70±2.85(56.6)

3. 소진

대상자의 소진을 항목별로 측정된 결과는 (표 3)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소진 평균 점수는 2.78±.52점으로 나타났고, 하부 영역별 측정 결과는 정서적 고갈이 3.37±.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 성취감 저하가 2.37±.68점, 비인격화가 2.36±.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 소진
 Table 3. Burnout

변수	하부영역	Mean±SD
소진	정서적 고갈	3.37±.70
	비인격화	2.36±.53
	개인성취감 저하	2.37±.68
전체		2.78±.52

4. 직무 만족도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를 측정된 결과 (표 4)와 같다. 전체 대상자의 직무만족도 평균 점수는 3.12±.58점이며, 전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3.24±.80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 측정 결과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3.59±.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 영역에서 3.22±.58점이며, 후생복지 영역에서 2.87±.70점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표 4. 직무만족도
 Table 4. Job satisfaction

변수	하부영역	Mean±SD
직무만족도	전반적 업무만족도	3.24±.80
	업무	3.22±.58
	후생복지	2.87±.70
	대인관계	3.59±.78
전체		3.12±.58

5. 노인학대 인식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 수준을 하부 영역별로 측정된 결과 (표 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노인학대 인식 전체 평균은 2.89±.3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영역별 결과는 성적 학대가 3.82±.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 3.14±.74점, 재정적 학대 2.85±.83점, 신체적 학대 2.79±.72점, 정서적 학대 2.63±.7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학대 인식
 Table 5. Awareness of elder abuse

변수	하부영역	Mean±SD
노인학대인식	신체적 학대	2.79±.72
	정서적 학대	2.63±.75
	재정적 학대	2.85±.83
	방임적 학대	3.14±.74
	성적 학대	3.82±.45
전체		2.89±.38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 차이는 (표 6)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은 성별($t=2.50, p=.013$), 연령($F=3.90, p=.009$), 학력($F=3.44, p=.017$), 결혼상태($t=3.42, p=.001$), 총 임상경력($F=3.26, p=.022$), 직종($F=8.21, p<.001$), 근무형태($t=2.02, p=.043$), 현 근무기관($F=4.39, p=.01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측정되었고, 연령에서는 20대보다 30대, 학력에서는 고졸보다 대학원 이상, 결혼상태는 미혼보다 기혼, 총 임상경력에서는 3~5년 미만보다 10년 이상, 직종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보다 의사, 근무형태에서는 교대 근무보다 상근 근무, 현 근무기관에서는 요양병원인 경우보다 종합병원 이상인 경우가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소진은 성별($t=-3.18, p=.002$), 연령($F=6.85, p<.001$), 학력($F=2.92, p=.034$), 결혼상태($t=-3.35, p=.001$), 직종($F=12.01, p<.001$), 근무형태($t=-4.35, p<.001$), 현 근무기관($F=6.06,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소진 점수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연령에서는 40대, 50대 보다 20대, 학력에서는 고졸 보다 학사, 결혼상태는 기혼보다 미혼, 직종에서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 근무형태에서는 상근 근무보다 교대 근무, 현 근무기관에서는 보건소와 요양병원보다 종합병원 이상인 경우가 소진이 높게 측정되었다. 직무만족도는 성별($t=3.00, p=.003$), 결혼상태($t=2.02, p=.043$), 직종($F=5.51, p=.004$), 근무형태($t=3.8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점수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결혼상태에서는 미혼보다 기혼, 직종에서는 간호사보다 의사, 근무형태에서는 교대 근무보다 상근 근무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노인학대 인식

은 현 근무기관(F=2.64, p=.024)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보다 종합병원 이상인 경우가 노인학대 인식이 높게 측정되었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의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knowledge about the elderly,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	
		Mean±SD	t or F(p) scheffe's	Mean±SD	t or F(p) scheffe's	Mean±SD	t or F(p) scheffe's	Mean±SD	t or F(p) scheffe's
성별	남	0.54±0.13	2.50	2.56±0.61	-3.18	3.34±0.58	3.00	2.88±0.39	-0.18
	여	0.50±0.10	(.013)	2.81±0.50	(.002)	3.08±0.57	(.003)	2.89±0.37	(.853)
나이	20대 ^a	0.48±0.11	3.90 (.009) b>a	2.88±0.55	6.85 (<.001) a>c,d	3.09±0.58	0.60 (.613)	2.88±0.36	0.57 (.634)
	30대 ^b	0.52±0.12		2.79±0.50		3.10±0.61		2.86±0.37	
	40대 ^c	0.53±0.11		2.59±0.42		3.20±0.53		2.92±0.40	
	50대 ^d	0.51±0.10		2.54±0.42		3.11±0.56		2.95±0.37	
학력	고등학교 ^a	0.46±0.10	3.44 (.017) d>a	2.58±0.48	2.92 (.034) c>a	3.23±0.61	1.65 (.176)	2.91±0.37	0.44 (.719)
	전문학사 ^b	0.50±0.10		2.81±0.43		3.01±0.49		2.88±0.35	
	학사 ^c	0.50±0.11		2.82±0.56		3.14±0.60		2.87±0.36	
	대학원이상 ^d	0.55±0.11		2.63±0.45		3.16±0.58		2.95±0.46	
결혼 상태	기혼	0.53±0.11	3.42	2.68±0.45	-3.35	3.18±0.53	2.02	2.89±0.38	0.29
	미혼	0.49±0.11	(.001)	2.86±0.55	(.001)	3.06±0.61	(.043)	2.88±0.36	(.766)
총 임상 경력	3년 미만 ^a	0.49±0.09	3.26 (.022) d>b	2.83±0.61	1.50 (.213)	3.18±0.62	1.95 (.120)	2.91±0.35	0.42 (.735)
	3~5년 미만 ^b	0.48±0.11		2.80±0.51		3.12±0.55		2.90±0.37	
	5~10년 미만 ^c	0.52±0.12		2.80±0.45		3.00±0.52		2.85±0.36	
	10년 이상 ^d	0.53±0.11		2.68±0.47		3.16±0.59		2.88±0.40	
직종	의사 ^a	0.56±0.10	8.21	2.53±0.63	12.01	3.36±0.58	5.51	2.89±0.35	1.41 (.245)
	간호사 ^b	0.50±0.11	(<.001)	2.86±0.48	(<.001)	3.06±0.57	(.004)	2.87±0.37	
	간호조무사 ^c	0.47±0.11	a>b,c	2.59±0.50	b>a,c	3.19±0.56	a>b	2.97±0.37	
근무 형태	상근 근무	0.52±0.12	2.02	2.65±0.52	-4.35	3.24±0.58	3.84	2.91±0.37	1.30
	교대 근무	0.49±0.10	(.043)	2.89±0.50	(<.001)	3.01±0.55	(<.001)	2.86±0.37	(.194)
현 근무 기관	보건소 ^a	0.52±0.11	4.39	2.33±0.62	6.06	3.36±0.54	2.46 (.087)	2.77±0.39	2.64
	요양병원 ^b	0.48±0.12	(.013)	2.73±0.54	(.003)	3.04±0.59		2.86±0.34	(.024)
	종합병원 이상 ^c	0.52±0.10	c>b	2.78±0.49	c>a,b	3.14±0.57		2.91±0.38	c>a

7.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7).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학대 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14, p<.01), 소진은 직무만족도(r=-.55, p<.01)와 노인학대 인식(r=-.10, p<.05)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노인학대 인식(r=.13, p<.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

Table 7.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the elderly,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	노인학대 인식
	r(p)			
노인에 대한 지식	1			
소진	-.08	1		
직무만족도	.04	-.55(p<.01)	1	
노인학대 인식	.14(p<.01)	-.10(p<.05)	.13(p<.01)	1

IV. 논의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및 노인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25점 만점에 12.71 ± 2.86 점이며, 하부 영역별로는 신체·생리적 영역, 가족·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1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종, 근무형태, 현 근무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령, 학력, 총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20] 연령과 총 임상경력의 경우 노인환자를 간호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환자를 경험하는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체득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학력의 경우 수준 높은 교육을 장기간 받은 후 축적된 지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노인을 간호해야 하는 의료관계 종사자들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폭 넓은 이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진의 전체 평균점수는 2.78 ± 0.52 점이며, 하부 영역별 점수는 정서적 고갈, 개인 성취감 저하, 비인간화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종, 근무형태, 현 근무기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강정숙과 임지영(2015)의 연구에서도 결혼상태,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1]. 먼저 기혼에 비해 미혼인 교대 근무자의 소진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기혼자가 가족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대 근무자들의 소진이 높게 나온 이유는 교대 근무가 근무자의 생체리듬을 변화시키고 건강을 저해함으로써 소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감정노동, 보호자 상태, 업무 과부하 등 다양한 요인이 의료관계 종사자들의 소진을 촉진시키고 있다[22]. 그러므로 환자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고 있는 많은 간호 인력의 소진을 중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며,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무만족도의 전체 평균 점수는 3.12 ± 0.58 점이며, 전

반적인 업무 만족도는 3.24 ± 0.80 점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는 대인관계 영역, 업무 영역, 후생복지 영역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성별, 결혼상태, 직종, 근무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대 근무에 비해 상근 근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천경주 등(201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23].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은 불규칙한 생활 방식과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감을 초래하여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스트레스나 소진상태를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노인을 간호하는 다양한 의료관계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과 더불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학대 인식의 평균점수는 3.05 ± 0.73 점으로 하위 영역별로는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다. 종합병원 이상의 상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보다 높은 노인학대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종합병원 이상인 곳에서 다양한 노인문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체득된 경험들이 노인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연구가 없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반복적인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학대 인식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은 노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 노인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노인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간호사들의 노인간호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노인학대 인식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추후 노인에 대한 지식과 노인학대 인식 간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진과 직무만족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24] 따라서 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관계 종사자의 소진을 완화시켜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긍정적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진 완화 및 직무만족도 향상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은 물론,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간호 수준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근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및 중재가 요구된다.

소진과 노인학대 인식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도 소진의 하부 영역 중 정서적 고갈과 노인학대 인식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잦은 소진 상태를 경험하는 의료관계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 오는 약한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노인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인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노인학대 인식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나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학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소진을 지목하고 있다[26]. 그러므로 의료종사자의 소진을 줄이고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노인학대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소진, 직무만족도와 노인학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노인간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의료관계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 및 간호를 받는 노인들의 인권보장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총 임상경력, 직종, 근무형태, 현 근무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소진은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종, 근무형태, 현 근무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성별, 결혼상태, 직종, 근무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노인학

대 인식은 현 근무기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지식은 노인학대 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14, p<.01$), 소진은 직무만족도($r=-.55, p<.01$)와 노인학대 인식($r=-.10, p<.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만족도는 노인학대 인식($r=.13, p<.01$)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학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출되지 않은 실제 사례들을 근거로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기관 및 대상자를 다양화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됨으로써 노인학대 대한 수준 높은 인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및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 H. Yun and J. S. Kim,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Behavior of Employee at Geriatric Long-Term Care Facilities on Job Burnout and Service Qualit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Leadership,"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4, pp.99-104, November 2019. <https://doi.org/10.17703/JCCT.2019.5.4.99>
- [2] S. M. Kim,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 [3] S. Y. Park, "General Hospital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6.
- [4] Y. M. Lee, S. J. Kim and K. S. Lim, "Factors Influencing Work-related Burnout of Nurses and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4, pp. 1755-1764, 2013. <http://dx.doi.org/10.5762/KAIS.2013.14.4.1755>
- [5] S. K. Kim and G. M. Kim, "Effects of Nurses' Job Stress,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Job Satisfaction : A Comparison o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nd General Ward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0, No. 3, pp. 1609-1624, 2018. DOI : 10.37727/jkdas.2018.20.3.1609
- [6] H. Y. Kim, "Actors Influencing on the Job Satisfaction for Care Workers -Case Study of Jeollanamdo,"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 No. 4, pp. 35-59, 2011. DOI : 10.16999/kasws.2011.42.4.35

- [7] J. B. Joo, “Mediating Effects of Burno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CTV Perception and Abusive Behavior of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Public security policy research, Vol. 31, No. 2, pp. 101-140, 2017. DOI : 10.35147/knpsi.2017.31.2.101
- [8] Y. H. Moon and D. W. Kang, “A Legal-Policy Study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the Welfare Facility For Older Persons,” HUFs Law Review, Vol. 42, No. 3, pp. 263-292. DOI : 10.17257/hufslr.2018.42.3.263
- [9] C. H. Jang, “Analysis of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Job Participation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 213-219, 2022. DOI : 10.17703/IJACT.2022.10.2.213
- [10] K. W. Lim, “The Study on Effects of a Geriatric Depression by Elder Abuse -Focusing on Mungyeong City,”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No.21, pp. 67-84, 2011.
- [11] E. B. Palmore, “The facts on aging quiz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98.
- [12] K. M. Yang, H. E. Oh, J. S. Kim and Y. J. Beak.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Elderly,” *The Medical Journal of Chosun University*, Vol. 27, No. 1, pp. 146-156. 2002
- [13] C. Maslash, S. E. Jackson,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No. 2, pp. 91-113. 1981.
- [14] S. R. Moon, “An effect of hospital employee’s emotional labor on burnout”, Master thesis Inje University, 2001.
- [15] P. C. Smith, L. M. Kendall and C. L. Hulin,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Il: Rand McNally,” 1969.
- [16] S. D. Seo, “Status of Busan regional medical center and study about job satisfaction,”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2013.
- [17] A. Moon, & O. Williams,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 *American elderly women. Gerontologist*, Vol. 33, No. 3, pp. 386-395, 1993.
- [18] H. M. B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er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13, No. 1, pp. 211-234. 2009. <http://www.kaps21.or.kr>
- [19] H. E.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Elderly, and Performance on Elderly Care,” Master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2009.
- [20] C. J. Lee,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Old Adult General Hospital and Geriatric Hospital,” Master thesis Hallym University, 2003
- [21] J. S. Kang and J. Y. Lim,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1, pp. 263-273, 2015. DOI : 10.5392/JKCA.2015.15.11.263
- [22] I. S. Hyeon and S. Y. Lee, “Mediating Effects of Burnout between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for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3, pp. 353-359. 2020. DOI : 10.5762/KAIS.2020.21.3.353
- [23] K. J. Chun, J. H. Choi, Y. R. Kim, S. O. Lee, C. H. Jang and S. S. Kim, “The Effects of both Shift Work and Non-shift Work Nurses’ Empathy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7 No. 3, pp. 261 - 273, 2017. DOI : 10.5392/JKCA.2017.17.03.261
- [24] B. M. Bang, S. Y. Lee and J. W. Cheong,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 2, 2018. DOI : 10.14400/JDC.2015.13.2.205, 13(2), 205-213.
- [25] D. H. Kim, “A Study of Workers’ Perception on Elder Abuse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Facilities at the Songpa and Dongdaemun District,” Master thesis Konkuk University, 2009.
- [26] M. W. Kim, “A Study on the Factors relating to Nursery Teacher’s Roll Stress, Burnout and Child Abuse,” *The Journal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Vol.19, pp. 107-127, 2015.